



## 「범접할 수 없는 완강 신화」 국어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해설(2)

| 박혜선 교수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[난이도: 중]

### 04.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?

- ① 오랜 대화를 통해 그와 신뢰를 구축(驅逐)하였다.
- ② 학문에서는 철저한 논증(論症)이 가장 중요하다.
- ③ 긴밀한 유대(紐帶) 관계를 맺었다.
- ④ 나는 협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(志向)했다.

[출제영역] 어휘/한자

[정답] ③

[해설]

- ③ 유대(紐帶: 紐 끈을 뉴, 帶 띠 대) : 둘 이상을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. 또는 그런 관계

<오답 해설>

- ① (옳지 않음) 구축(驅逐: 驅 몰 구, 逐 쫓을 축) :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.  
\*구축(構築: 構 암을 구, 築 쌓을 축) : 쌓아 올려 만듦, 바탕을 닦아 이루거나 마련함.
- ② (옳지 않음) 논증(論症: 論 말할 논, 證 증거 증) : 증세를 논술함.  
\*논증(論證: 論 말할 논, 證 증거 증) : 근거를 들어 진술하는 방법을 씀.
- ④ (옳지 않음) 지향(志向: 志 뜻 지 向 향할 향) : 어떤 목적으로 뜻이 쏠리어 향함. 또는 그 의지나 방향  
\*지향(指向: 指 가리킬 지 向 향할 향) :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.

[난이도: 중상]

### 05. 띄어쓰기가 바른 문장은?

- ① 그녀도 나만큼이나 첫사랑을 잊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.
- ② 공부는 커녕 놀기만 하던바 시험 성적이 바닥을 쳤구나.
- ③ 그가 집을 떠난지도 3개월이 흘렀다.
- ④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창문을 닫았다.

[출제영역] 어문규정/어법

[정답] ②

[해설]

- ② 보조사 '는'과 '커녕'이 연달아 쓰인 문장이다.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, 보조사 '커녕'은 앞말과 붙여 쓴 것은 적절하다. '하던바'에서 '바'는 의존 명사 '바'일 수도 있고 어미 '-ㄴ바'일 수도 있다. 이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'-으니까'를 대입했을 때 말이 되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어미 '-ㄴ바'이므로 여기에서는 붙여쓰는 것이 옳다.

<오답 해설>

- ① '일'이나 '것'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명사 '데'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, '그녀도 나만큼이나 첫사랑을 잊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.'로 써야 한다.
- ③ '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'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명사 '지'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'그가 집을 떠난지도 3개월이 흘렀다.'라고 써야 한다.
- ④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'-는데'가 쓰인 문장이다. '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창문을 닫았다.'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.

[세상 어디에도 없는 추가 해설]

#### ①, ④ '데'의 띄어쓰기

데	의존 명사	'곳'이나 '장소', '일'이나 '것', '경우'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 ex) 지금 가는데가 어디인데? / 그 책을 다 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. 사람을 돋는 데에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? /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데 쓴다.
	어미	연결 또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'-ㄴ데'는 붙여 쓴다. ex)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. 나무가 정말 큰데 대체 몇 살인 걸까?

- ②는커녕: 보조사 '는'과 보조사 '커녕'은 둘다 조사이므로 붙여 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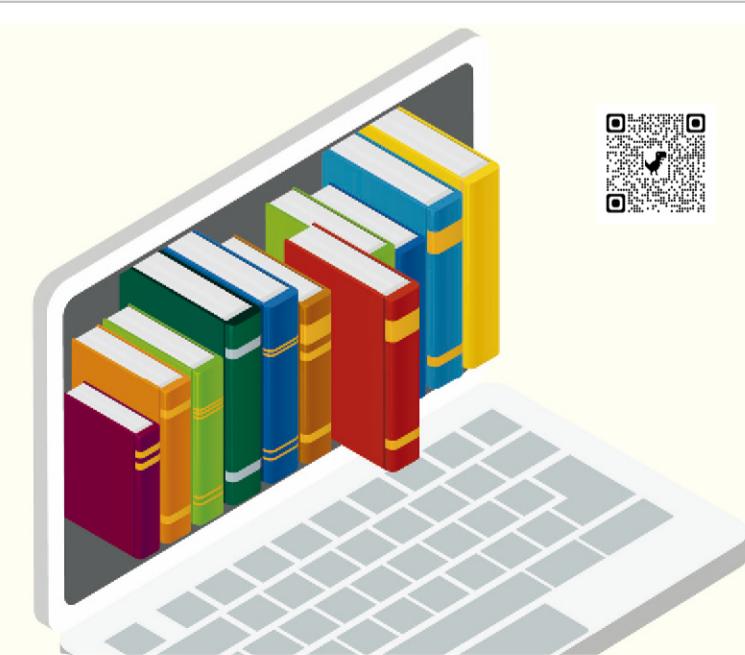
ex) 그는 웃기는커녕 날 보지도 않았다.

#### '비'의 띄어쓰기

비	의존 명사	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이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. ex)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. / 어찌할 바를 모르다. 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.
	어미	'~니까'의 의미를 갖는 어미 '-ㄴ비'는 붙여 쓴다. ex)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.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. 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.

#### ③ '만, 지'의 띄어쓰기

만	의존 명사	시간, 거리, 횟수를 나타내는 말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 ex)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. /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.
	조사	•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. ex) 하나만 알고, 둘은 모른다. /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. • ('하다', '못하다'와 함께 쓰여)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ex) 집채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. / 청군이 백군만 못하다. / 안 가느니만 못하다.
지	의존 명사	(어미 '-은' 뒤에 쓰여)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 (시간의 경과) ex)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./집을 떠나온 지 어언 3년이 지났다.
	어미	어미의 일부일 때는 붙여 쓴다. ex)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. /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



수험서/자격증  
전문 쇼핑몰 **북스파**

각종 시험 준비는 북스파와 함께하세요~!  
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혜택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~!

공무원 / 교원임용 / 자격증 / 외국어 / 취업 / 컴퓨터 / 수험용품